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18(土) 차차흐려져 비 24/29℃ 19(日) 흐리고 비 23/30℃

단기 4342년 (음력 5월 2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kwangju.co.kr 제18422호 1판 2009년 7월 18일 토요일

국회의원 보좌관 그들의 파워는?

스타 의원 만드는 미다스 손 눈에 안 띄는 여의도의 실세

한 국회의원에 6명…의정 보조·지역 관리 역할

청문회·국정감사 땐 자료 준비 밤 새우기 일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 보좌관들은 천 후보자 아들 청첩장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인들을 통해 호화 결혼식 사실을 알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 결국, 오후 늦게야 청첩장을 구해 국회로 돌아갔다.

그리고 밤 10시. 박지원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나타나 보좌관들 앞에 자료 한 뭉치를 건넸다. 그 속에는 천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과 천 후보자 부인 등 가족의 면세품 구입 리스트가 있었다. 그날 밤 보좌진은 거의 밤을 꼬박 세우며 이 자료들을 정리했다. 다음날 박 의원은 스타가 됐고 천 후보자는 낙마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실의 보좌관은 감사원 비공개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그 자료에는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공무원이 4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들어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정국을 주도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동의 단초였다.

이처럼 정국을 강타한 쟁점을 발굴한 스타 의원들 뒤에는 보좌진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다.

국회의원 1명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6명. 4급 2명과 5·6·7·9급 비서관 1명씩이다.

보좌진의 생활은 고달프다. 보좌진의 가장 주된 역할은 크게 국회 고유 업무와 선거 및 지역관리 업무다. 국회 고유 업무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3대 역할인 입법권, 행정 감시권, 재정권, 즉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 업무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준비하고 돕는 일이다. 선거 및 지역 관련 업무는 선거 기획에서부터 공약 개발, 홍보물 제작, 지역 민원과 현안 챙기기 등의 업무를 말한다.

무엇보다 보좌진은 국회의원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보통 새벽같이 일어나서 인터넷과 개인 e-메일을 통해 주요 언론기사와 정보 사항을 취합한 뒤 국회로 출근한다. 출근하면 지역 사무실로부터 민원과 일정 등 지역의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받고 국회의원의 일정을 챙기고 보좌진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루 업무를 점검, 지시한다. 이후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해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시정사항을 전달한다. 국회의원의 지시사항이나 관심사항을 처리하고, 국회를 찾아오는 다양한 민원인들과의 만남도 계속된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축사도 준비하고, 국회의원이 주요 당직을 맡을 경우 그 업무도 보좌한다. 또 정무 담당 보좌관의 경우 기자들과 잦은 교류를 통해 의원의 활동상황을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루가 부족할 정도다. 보좌관들 사이에선 '일용잡급직' '사노비'란 한탄도 흘러나올 정도다. 특히 국정감사 때는 밤을 새우기 일쑤다.

그런데도 보좌진의 채용 권한은 전적으로 의원이 갖고 있으므로 의원이 낙선하면 곧바로 실직이다. 의원과 성격이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나라당 S의원 등은 1년에 십여명의 보좌진을 바꾸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을 경우 여러 의원들 보좌하며 장수하는 보좌관들도 많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실 고영대 보좌관은 23년째 재직 중이다. 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실 장석영 보좌관도 21년,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 최충규 보좌관은 20년째 의원회관을 지켜왔다.

의원 중심으로 일이 이뤄지다 보니 '횡포'에 대한 뒷얘기도 끊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의원실 식구들을 아침마다 모두 모아놓고 특정 종교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구설에 올랐다. 의원이 사무처에 보좌관을 4급으로 신청해놓고, 실제 월급은 5급에 해당하는 만큼만 주는 편법으로 그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17대 국회 당시 여당의 재선의원은 수행비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비서를 한강 다리 중간에 내려놓고 가버렸다. 반대로 17대 국회 야당 의원의 비서가 의원의 안하무인 태도에 화가 나 한강 다리 중간에서 차에서 내려 차 열쇠를 강물에 던지고 그대로 떠난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민 응급구호품 17일 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북구 매곡동 구호품 비축창고에서 담요, 반바지, 내의, 일회용품 등이 담긴 응급구호품 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최근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616가구 1천 351명의 이재민에게 응급구호품을 전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DJ 병세 호전…맥박·호흡 정상

세브란스 병원 "2~3일내 인공호흡기 제거"

폐렴으로 입원해 한때 위독설이 나돌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7일에는 맥박과 호흡 등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장준 교수(호흡기내과)는 이날 오후 병원 기자실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의 맥박, 호흡, 체온 등 건강수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으며, 상태가 계속 나아질 경우 2~3일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기계가 전적으로 호흡을 보조하다가 현재 자발호흡을 늘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고령인지라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호흡기 제거 시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중환자실에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속단을 경계했다.

병원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그동안 신장 투석을 받아왔고,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병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 교수는 또 "인공호흡기 낀 상황에서는 호전이 됐다"며 "현재 김 전 대통령은 자발호흡과 인공호흡을 반반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많이 좋아지셨다"며 "오늘 아침 면회를 했는데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해했다'는 표시로 손을 두 번씩 잡곤 했고 간호사가 뭐라고 말하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성관 자료 출처 검찰, 관세청 내사

검찰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 문제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관세청을 상대로 내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천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4일 사의를 밝힌 직후 관세청 본부에 2~3차례 전화해 관련 자료의 관리책임 상황과 박 의원의 접촉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천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엊그제부터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며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지 찾으려고 제 주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로호' 발사 10일 이상 연기

교과부 "실험 장비 소프트웨어에 이상"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가 최소한 10일 연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사체 1단 개발을 담당하는 러시아 흐루니체프사는 최종 연소시험 완료 후 나로호 총조립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최종 연소시험후 3일 정도 지나야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발사체 1단의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총조립에 들어가게 된다"며 "나로호 총조립 후 발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10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나로호 개발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발사체 1단 연소시험이 당초 23일에서 나흘 이상 연기된 사유에 대해 "러시아측은 그간의 비연소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험설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견돼 이의 수정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오월 광주' 전도사 12명 ▶3면
LED TV 뭐가 좋을까 ▶4면
광주공원 탐방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로페즈·구톰슨 올스타 출전 ▶14면